

[6] 이 정 운

그루터기만 남은 거무스름한 논바닥에도 이제 물만부어 놓으면 몽땅일을 기세다.

"어초츠" 늦가을, 아니 초겨울이라는 편이 낄을까? 두루마기를 잔뜩 움추린 선비하나가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젠장, 마을도 채 달기전에 해가지다니 어디 몸불일데도 없게 됐구만" 시커먼 나뭇가지가 잔뜩 손뼉친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아롱된다. "휴" 선비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주인장 계시오. 여보, 주인장 계시오?" 한참만에 문이 열리고 노부부가 얼굴을 내민다.

"지나가는 손입니다만 날이 저물었는데도 인가를 찾지 못하였기로 외람되어 문을 두르렀습니다. 어디 밤 이슬만이라도....."

노부부는 망설이는 듯싶더니 이내 들어오라고 하였다.

"드리구 싶어도 어디 이 고구마밖에 없구만유." 노파가 고구마를 내밀며 말했다. 그릇을 내미는 노파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있었다. 선비는 못본체 내놓은 음식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저, 실례인줄은 압니다마는 노부부께서 어인일로 그리 수심이 많으신지요. 혹 제힘이 미칠 수 있다면 아니 그보다 제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젊은이인들 무슨힘이 있겠소? 다 소용없는 일이요."

"아닙니다. 꼭 그렇다고만 할 수 없지요. 말씀해 보시지요."

"그렇다면..... 벌써 며칠전 일이지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 노부부에게는 늦게야 얻은 딸 하나가 있었는데 물론 애지중지한거야 두말할 나위도 없었소. 이곳에서 좀 내려가면 마을이 하나 있는데 이번봄 보릿고개에 노인들이 힘이없어 식량을 못구하기로 부득이 아무개라는 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올해따라 흉작이라 돈을 못 갚자 어느틈 몇곱이자가 되어 갚을 재간이 없었소. 그리하던중 요며칠전 그중놈들이 그 이자대신 무언가 갚을것이 있어야 한다면 딸을 빼앗아 갚지 무엇이오." 라고 노인은 이야기 했다.

"차라리 우리가 그놈들 종이 되는것이 낫지 우리딸을..... 어이구 !"

노파는 아예 돌아앉아 연신 웃고름을 울리고 있었다.

"이런 일이....."

"그놈들은 상습적 도둑놈들이지요.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께유. 관가에 알리려고 해도 후환이 두려워서 손을 못댄다 이거지요."

선비는 위로로 하고는 건너방(노파가 자리를 펴준)으로 건너갔다.

다음날 아침 대문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에 노부부는 잠이 깨었다. 밤에 한탄하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인 까닭이었다.

"누구슈?"

문을 연 노파의 얼굴이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희열에 가득차 올랐다.

"엄니, 저여유, 엄니 딸여유."

아침밥을 먹으라고 선비방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은 없고 쪽지하나와 엽전꾸러미만 남아있었다. 쪽지에는,

"여기 얼마안되지만 보태 쓰십시오. 그리고 따님은 곳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그 선비는 이정운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던 암행어사였다. 그는 지금의 아산군 신창에서 태어났다. 자는 공저, 호는 오사였다. 1776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정인, 지평을 거쳐 1781년 충청도 암행어사를 지낸던 때의 일이었다. 그후에도 그는 암행어사의 일을 충실히 해내었고 1784년에는 서장관으로서 사은사로 박병원등과 함께 중국에 다녀왔으며 승지로도 지내다가 충청도 관찰사, 함경도 관찰사등을 지냈다.

임금께서는 그에게 정민이라는 시호까지 내렸고 노후에 그는 자연을 벗삼아 여행을 다녔다.

신창, 그래 우리고장에도 이같은 분이 계시다니 ! 다시한번 마을입구에 서서 옷매무새를
고친다.